

쿠키뉴스 > 전국부산·경남·울산

남해관광문화재단, 남해바래길 작은음악회 '앵강극장' 개최

강연만 / 기사승인 : 2023-08-30 17:34:08

경남 남해군 야외 공연문화의 새로운 장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 '남해바래길 작은음악회(이하 작은음악회)'가 오는 9월8일과 10월13일에 개최된다.

남해관광문화재단(본부장 조영호)이 주최하고 남해바래길 탐방안내센터가 주관하는 작은음악회는 지난 2021년 영상음악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3년차를 맞는다. 올해는 '앵강극장'을 모토로 뮤지컬과 팝페라 음악이 앵강다숲을 채운다.



특히 올해 1회차인 9월8일 공연에는 우리나라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배우 남경주 씨가 무대에 올라 친숙한 뮤지컬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저녁 7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될 작은음악회는 남경주 씨 외에도 독일 아헨 국립음대를 나와 오페라 가수와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정승원 씨도 무대에 선다.

아울러 테너 박재화, 박동운, 바리톤 최판수, 최정수 씨로 구성된 팝페라 그룹 '일 빼스카토레(IL PESCATORE)'가 오 솔레 미오 등의 멜로디로 앵강다숲을 뮤지컬 공연장으로 탈바꿈 시킬 계획이다.

10월13일 저녁에 열리는 2회차 공연은 파페라를 테마로 소프라노 김민성, 박수정, 테너 박재화 박성욱으로 구성된 혼성그룹 '라보체 디 솔레(La Voce di Sole)'가 우리에게 친숙한 멜로디로 관객들을 이끈다.

앵강다숲 연꽃테마공연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는 '작은음악회는 마치 오페라하우스 같은 입체적인 관람석으로도 주목을 받는다. 야외무대 바로 앞에 우뚝 선 남파랑길여행지원센터(이하 남파랑길센터)의 2층과 3층 야외테라스를 객석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남파랑길센터 야외 테라스에서 넓게 굽어보는 앵강다숲의 저녁 야경은 한층 더 그윽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작은음악회는 입장료 없이 무료로 공연되며 미니바에서는 간단한 음료를 판매한다. 지정좌석제가 아니므로 선착순 좌석이 운영된다. 단, 먼저 도착한 사람이 뒤에 올 일행 좌석을 미리 맡아두는 것은 금지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바래길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남해바래길탐방안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남해=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